

**이코노&비즈 피플**

**정석 황 고운시티아이 대표이사**

# “내년까지 도급순위 200위내 반드시 진입”

**95년 설립... 2003년 종합건설업  
인천 남항 제3준설 공사 등 주력  
올 매출액 1000억원 목표로 매진**



정 대표. 내년에도 서산 테크노벨리와 경기도 양수리 아파트를 비롯, 광주 남구에도 아파트 신축을 계획중에 있다.

정 대표는 “그동안 관급공사에 회사가 치중해 있었지만, 주택사업과 민간도급 사업으로 진출해 고운시티아이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가 최악의 불경기라고 하지만 틈새시장은 분명 있기 마련”이라며 “고운시티아이는 관급과 주택건설을 5:5로 맞춰 리스크를 분산하고, 금융비용을 아껴 불황을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황인 주택시장이 3~4년 새 불황으로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도 전했다.

정 대표는 “주택건설업계는 주기가 있는데, 현재 호황을 맞고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수년 전 부도가 난 업체의 사업장이고, 이를 여러 업체가 진출하며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신도시개발을 중단하기로 한데다, 택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덩치 큰 업체들이 근경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성산업(주), (주)우방을 거쳐 대주건설(주)에서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광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한 정 대표는 20여년 간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며 주택사업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내년까지 전국 도급순위 200위권 안에 진입해 고운 하이츠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높여겠습니다.”  
광주지역에 ‘고운 하이츠’ 브랜드로 잘 알려진 종합건설업체 (주)고운시티아이의 정석황(53) 대표는 “도약은 변화를 부르고, 변화는 쇄신을 부른다”며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사업방식을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운시티아이는 지난 1995년 건설업에 진출해 관급공사를 기반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쌓아 성장한 회사다. 2003년 종합건설업체로 새로운 면모를 갖춘 뒤 전국 진출에 성공해 지역 중견업체로 발돋움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고운시티아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회사의 성장 기반을 전국으로 넓혔다.

올해 매출액 1000억원을 목표로, 왜간~가산 도로건설공사와 인천 남항 제3준설 및 동축교량 공사, 잔여공유수면 매립 및 항공기정비시설 부지조성공사, 서산 테크노벨리 아파트 신축, 서울 영등포 호텔 신축 등 주택건설과 관급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

## ‘갤럭시 쇼크’

### 삼성전자 영업이익 4.1조 ... 60% 급감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5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7일 올해 3분기에 4조1000억원(잠정실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올해 2분기(7조1900억원)보다 42.98%, 작년 같은 분기(10조1600억원)보다 59.65% 각각 감소한 실적이다.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4분기(4조6700억원)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이다. 분기로는 11분기 만이다. 분기별로는 2011년 3분기(4조33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에 8조원 아래로 추락한 데 이어 한 분기 만에 다시 3조원이나 떨어져 본격적인 실적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47조원이다. 매출액도 2분기(52조3천500억원)보다 10.22%, 작년 동기(59조8000억원)보다 20.45% 각각 줄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5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분기(47조6천억원) 이후 2년 여 만에 처음이다. 매출액은 분기별로 보면 2012년 1분기(45조2천7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두 분기 연속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영업이익 4조원이라는 마지막 선을 가까스로 지켜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IT·모바일(무선사업)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모바일 제품의 수요 약세에 따른 시스템 LSI와 OLED 패널 사업 수익성 악화 등을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70%를 점했던 IT·모바일 부문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둔화와 중국 저가 스마트폰 업체들의 공세,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과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올해 1분기 6조원대였던 IT·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은 2분기에 4조원대로 떨어졌고 3분기에는 2조원 초반까지 내려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확정실적 공시 때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을 발표할 예정이다. TV 사업도 패널 가격 강세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보다 실적이 나빠졌으며, 생활가전도 계절 제품인 에어컨 성수기 조기 종료 등의 여파로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반도체 메모리 부문은 PC·서버 등의 계절적 성수기 수요 강세로 가격이 안정되고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원가절감 등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쉽사리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등 국내 주요 16개 기업

## 내년까지 28조 투자 나선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16개 주요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8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파악된 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소개한 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동참을 권유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실행되도록 일대일 전담 지원체제를 가동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수출업계가 겪고 있는 엔저 문제와 관련 “유도가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이기는 경기인 것처럼 기업도 발상 전환을 해 보면 관철을 것 같다”며 “엔저로 가격이 하락한 일본산 시설재를 활용해 투자에 나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날 참석한 16개 기업의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함께 제시했

다. 16개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SK에너지, LG화학,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한국GM, SK종합화학,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삼성토탈, 포스코, GS칼텍스, 에스오일, 한국전력 등이다.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중에 새로 착수할 투자사업은 총 13건으로, 규모는 28조4000억원이다. 내년을 넘겨 시작할 투자사업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77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신규 투자만을 따진 것으로, 연례적인 시설 유지보수 투자나 신모델 개발 투자 등은 제외됐으며 기업 내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도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투자계획 중에는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기에 구축하기로 한 반도체 라인 증설 사업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2017년까지 약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라인 1기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연합뉴스

## 지역 출신 KB금융지주 수장 오를까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1차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통과한 인사 중 광주·전남 지역출신이 3명이나 포함돼 주목된다.

지난 2일 회추위를 거쳐 최종 후보에 오른 8명(이하나다순)은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김욱 전 국민은행 부행장 ▲양승우 달로이트앤진 회계법인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CFO)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겸 이사회의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 7명과 이름 비공개를 요청한 1명이다.

비공개 인사는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윤종규 전 부사장과 지동현 전 부사장, 광양이 고향인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3명이다.

금융권에선 차기 회장은 KB금융 내부 출신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어 내부 출신이냐 외부 인사냐가 관심이지만 지역에선 광주·전남 출

### 차기 회장 1차 후보 8명 압축

윤종규·지동현·하영구 포함

### 이달말 최종 후보 1명 선정

신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금융지주의 장에 오를지 주목하고 있다.

내부 출신 우세 속에 이 지역출신인 윤종규 전 부사장이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상고와 성관대를 졸업한 윤 전 부사장은 행정고시(25회)에 차석으로 합격했으나 학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임용되지 못했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를 지냈다. 2002년 국민은행에 처음 발을 들였다.

윤 전 부사장은 재무전략본부장(CFO)으로 있을 때 처리한 국민카드 합병회계가 문제가 되자 2004년 10월 스스로 물러났으나 2010년 8월 KB금융지주 부사장으로 복귀했다.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부사장은 보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조흥은행 부행장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약 2년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을 맡았다. 이후 카드사 설립 기획업무를 맡다가 2011년부터 2년 남짓 국민카드 부사장을 역임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에 씨티은행에 입사해 2001년 한미은행장을 역임하고 2004년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이 한국씨티은행으로 통합한 뒤에도 출근 한국씨티은행을 이끌고 있다.

한편 회추위는 후보에 대해 평판 조사를 하고 이달 16일 예정된 4차 회의에서 후보를 4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 4명에 대해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이달 말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한다. 최종 후보는 다음달 2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건물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일반/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임  
→ 대지 전체, 건물 1/3 지분 낙찰  
→ 건물 1/3 지분 일반 매입  
→ 건물 1/3 지분 낙찰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대출 3억5천 가, 보 2억에 월 30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전체 올 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 -1억원 정도  
매매가 - 72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 오피스텔 매매

수기등 제일 오피스텔

### ■ 77평 - 20층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 - 3억5000만원  
매매가 - 2억5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

##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 ~ 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